

의약품료 수출 감소에 화장품 증가

완제의약품 수출은 121.4% 증가 ... 화장품 수입 1억8000만달러 상회

2004년 들어 제약원료 수출입이 2003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한 반면 화장품 수출입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1-4월 수출실적과 1-3월 수입현황을 집계한 결과, 제약원료 수출은 1억9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.7% 감소했으며 제약원료 수입은 2억9100만달러로 34.1%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, 화장품 수출액은 58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.4% 늘어났으며 화장품 수입액은 1억8200만달러, 화장품 원료 수입액은 1900만달러로 2003년보다 각각 30.8%, 6.1% 증가했다.

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수출총액은 2억57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.0% 늘었으며 수입총액은 7억5200만달러로 8.3% 감소했다.

의약품 수출실적

(단위: 1000달러)

구 분	2004(목표)	2003.1Q	2004.1Q	목표대비	전년동기대비
제약원료	425,000	127,621	108,793	25.60%	85.25%
완제의약품 (의약부외품)	350,000	75,197	91,303 (18,107)	26.09%	121.42%
한약재	5,500	1,009	517	9.40%	51.24%
화장품	170,000	42,439	57,897	34.06%	136.42%
합 계	950,500	246,266	258,510	27.20%	104.97%

무역역조 심화가 두드러진 분야는 한약재로 수출실적은 50만달러로 2003년 같은 기간에 비해 48.8%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00만달러로 23.6% 늘었다.

완제의약품 분야는 수출이 9100만달러로 21.4% 늘었으며 수입은 2억500만달러로 23.0% 증가하는 등 수출입이 큰 폭으로 함께 늘었으나 의약부외품, 체외진단용 의약품, 방사성 약품 등은 2003년 1-4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.

<화학저널 2004/06/09>